



극지포럼 제9차 정례세미나

남극·북극은 지금

21세기 극지연구 패러다임의 변화, 그리고 기회

(Paradigm Shift of Polar Research, and Our Opportunities)

일시: 2015.10.8(목) 14:00~17:00

장소: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(19층)

오시는 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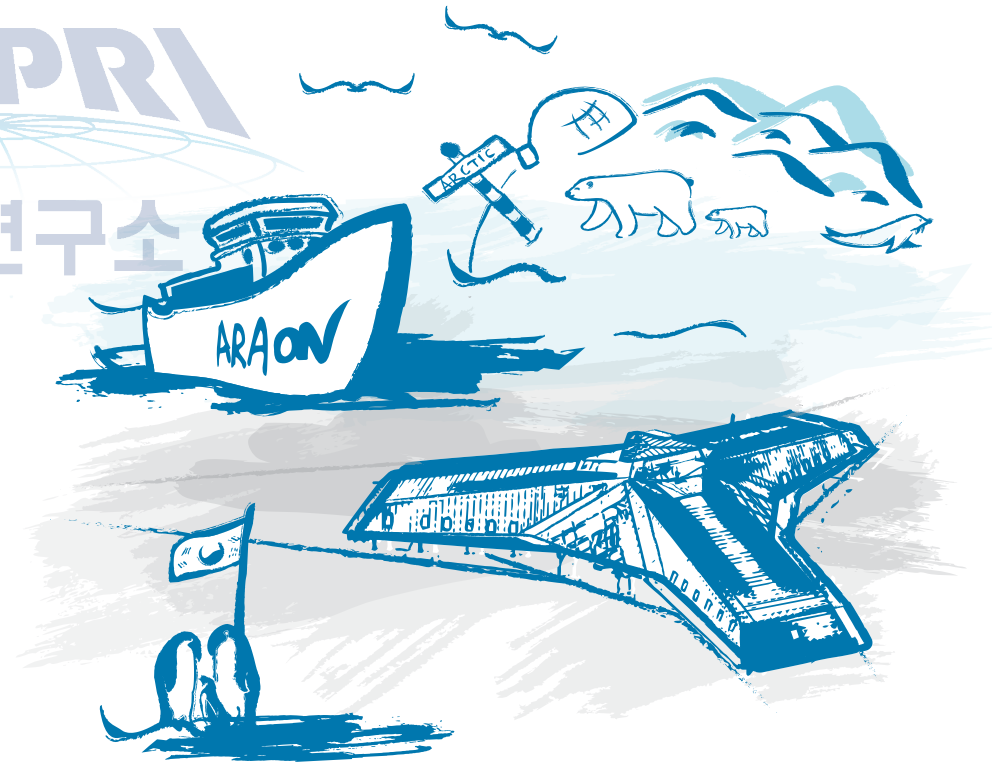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9층

| 한국프레스센터 문의 : 02-526-8600~4

지 하 철: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한국프레스센터 방향
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한국프레스센터 방향 300M

버스노선: 1) 서울신문사 하차
지선 1711, 7016
간선 101, 150, 402, 405, 501, 506, N40
 2) 광화문빌딩 하차
간선 700, 707
광역 9703, 9714, M7106, M7111, M7119

※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,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행사 일정

모시는 글

사 회 : 객재원 운영위원장 (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)

14:00 ~ 14:20	현 장 등 록
14:20 ~ 14:30	인사말 : 김예동 공동대표 (극지연구소 소장) 축 사 : 최장현 공동대표 (위동항운 사장)
14:30 ~ 14:50	「남·북극 최신 연구동향과 전망」 신형철 실장 (극지연구소 국제협력실)
14:50 ~ 15:10	「남극 얼음 밑 호수연구 현황과 미래」 이종익 박사 (극지연구소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)
15:10 ~ 15:30	휴 식
15:30 ~ 15:50	「남극 빅토리아랜드의 지질연구 현황과 미래」 김윤섭 교수 (충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)
15:50 ~ 16:10	「극지항해 안전과 극지환경 보호를 지원하는 Polar Code」 하태범 본부장 (한국선급)
16:10 ~ 16:40	좌 장 : 객재원 운영위원장 지정토론 : 박수현 부장 (국제신문), 홍성민 교수 (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), 정대교 교수 (강원대학교 지질학과)
16:40 ~ 17:00	질의·응답 및 폐회

안녕하십니까,

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·가뭄·대형태풍 등의 기상재해와 지진 및 화산폭발 등에 따른 재난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남·북극 지역도 빙상 및 해빙의 감소로 생태계 및 자연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,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북극의 빙하 감소로 인해 북극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북극항로, 자원 등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.

우리나라는 20년 이상 극지연구 및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여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(2014), 제2 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등 극지분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. 이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극지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,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.

이에 극지포럼은 각계 전문가 및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, 「21세기 극지연구 패러다임의 변화, 그리고 기회」란 주제로 제9차 정례세미나를 개최코자 합니다.

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북극 최신 국제 연구동향은 물론 남극대륙 빙하 및 호수, 남극의 활화산 및 지질, 극지역 운항 선박에 대한 국제 규정(Polar Code) 동향 등 다양한 분야가 다뤄질 예정이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, 고견도 내주시길 바랍니다.

극지포럼 사무국

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
전화 : 032-770-8422/8424 팩스 : 032-770-8429
메일 : shkshk@kopri.re.kr

극지포럼 공동대표 드림

주 최 | 극지포럼

후 원 |

